

시론



김영식
남부대 교수·웃음 명상전문가

새로운 대통령의 업무가 시작됐다. 필자는 지난달 시론에서 지도자의 품격과 유머에 대해 언급했다. 위기의 시대에 그동안 힘들었던 국민의 마음을 보듬어 주고, 리더의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진정한 지도력을 보여줄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국민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다. 이제 노를 저어 넓은 바다로 향하면 된다. 대통령의 여유로운 미소와 유머러스한 말 한마디는 천 냥의 금과도 맞먹는다. 최근 금값의 고공행진에 맞춰 13년 만에 은값이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 국민의 얼굴도 천 냥의 금값처럼 활기가 넘치기를 기대해 본다.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면서 길거리의 활기가 돌고, 소상공인의 식당에도 손님들의 발길이 잦아지는 듯한 모습은 우리 경제에 웬지 긍정적인 변화의 신호를 주고 있는 것 같다. 그동안 움크리고 힘들었던 얼굴을 펴고 손님들에게 환한 웃음을 전해 주는 자영업자 사장님들의 모습을 많이 접했으면 좋겠다. 요즘 미국의 상황을 보면 심상치 않다. 한마디로 이민자들이나 타국인들에게는 아비규

환의 상태인 것은 분명하다. 어느 시위대 참가자가 한 말이다. “미국은 이민자들이 인하여 만들어진 나라다. 미국도 원래 자기의 땅이 아니었다. 약탈한 땅에서 주인의 행세를 한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향했고 온갖 고생을 해서 지금의 미국을 함께 만들어 갔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범죄자가 돼 나가고 한다. 우리 주변에도 미국행이 막혀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학생과 사업가들이 속출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세계 각국의 전쟁, 마약 및 이민자 처리 문제, 고용의 불안정 등 거대한 글로벌화로 인해 생기는 지구 경찰 역할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다. 그럼 국내의 상황은 어떤가. 현재 한국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마약으로 인한 사회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 의사소통의 부재, 유학생들의 학업이 생활 돈벌이로 전락해 버린 현실 등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전남 지자체와 지방대학들도 학령 인구와 노동인력이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유학생과 노동 인력들을 대거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 해결에 고심중이다. 이들의 언어 및 경제 문제 등이 학업 등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또한, 이들이 한국으로 유학하러 오기 위해 지불 해야 하는 중간소개비 등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다 보니 가족 문제로 비화 되기도 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생각을 모아야 한다. 외국은 틈 문화가 자연스

럽게 자리를 잡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환하게 웃으면서 서빙을 하는 외국인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만 원짜리한 장도 아깝지 않게 쓰는 경우가 많다. 언어만큼 중요한 것이 서비스 정신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 서비스가 바로 광주·전남의 격을 올리는 것이다. 이제 식당에서 주인 빼고 전부 외국인 노동자가 될 날도 멀지 않은 것 같다.

이들에게 한국어 교육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올바른 서비스 정신이다. 처음에는 어수룩하게 보이지만 조금만 지나면 주인과 임금을 흥정하고 장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소상공인들의 하소연이다. 이제 외국 노동자들도 올바른 서비스 정신과 손님에 대한 예의와 미소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우리 자신도 품격을 갖고 그들을 대해야 할 것이다. 더운 여름 거리에 좌판을 깔고 채소를 팔던 아주머니께서 필자를 알아보고 얼마전 남편과 다뤘다며 스트레스 때문에 장사가 재미가 없다고 웃음 한번 주시라고 했다. 남편 얼굴을 보고 화가 나면 해바라기, 장미, 코스모스 꽃 이름을 크게 부르며 욕을 대신해 보라고 적극 권장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지나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의 감성만큼이라도 잘 지켜가야 한다. 관광문화에서 서비스와 즐거움이라는 영역은 매우 중요하다. 자신이 금처럼 빛이 날 때 자신의 가치도 높아지는 것이다. 미소와 웃음은 자신을 금값으로 만들 수 있는 열쇠임을 잊지 말고 더운 여름을 맞이해야 할 것이다.

社説

준공영제 광주 시내버스 파업이 남긴 만만찮은 숙제

월요일부터 출근·등굣길은 여유를 되찾았다. 13일 간의 광주 시내버스 파업이 끝난 것이다. 전세버스까지 대체 투입하며 시민 불편이 커졌던 상황에서 광주시 중재로 광주버스운송사업조합과 노동조합이 임금 및 단체협상에 극적 합의했다. 기본급을 3% 인상하고, 정년을 62세로 연장하며, 대중교통혁신회의를 통해 근로자 임금 및 처우 향상, 요금 현실화, 준공영제 개선을 협의하는 게 주내용이다.

천문학적 재정지원금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공식성 강화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해마다 늘어나는 세금에도 수송 분담률은 떨어지는 추세다. 반복되는 노사 갈등과 불투명한 경영 구조, 지속되는 적자 운영 등 수많은 문제점도 노출되고 있다. 폐지해야 하는 것이냐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준공영제에 대한 재점검이 시급하다.

임단협 협상 실패에 따른 파업이 시민들의 눈총이 따가웠다. 광주시가 적극 중재해야 한다고 했지만 제3자 개입을 우려하며 소극적 자세를 보여 비난을 사기도 했다. 지금처럼 ‘퍼주기’ 식이라면 또 시민의 발을 묶는 사태가 재발하지 않

으리라 보장이 없다. 준공영제의 한계를 손보는 전환점이 돼야 하는 것이다. 대차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도시 구상의 한축이다. 시내버스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광주시와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이제 노사가 함께할 대중교통혁신회의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광주시 재정 부담액이 2007년 196억원에서 2024년 1천402억원으로 7배 폭증했다. 누적액이 1조원을 훌쩍 넘어섰지만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는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한다. 개통이 지연되고 있긴 하나 도시철도 2호선과 맞물려 노선 개편을 계획하는 만큼 연계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시민을 볼모로 삼는 일을 다시는 용납할 수 없다. 현실화라는 명목으로 요금 인상도 추진되고 있다. 시내버스 업체는 경영 합리화를 위한 자구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근로자 임금 체계를 다듬어야 한다. 대중교통혁신회의의 역할이 크다.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등 기대 수준에 맞는 실질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 신뢰를 잃는 건 한순간이다. 명심해야 한다.

전두환 찬양 합천 일해공원 폐지 전국적 연대 시급

광주시민 50여명이 경남 합천군 일해공원에서 명칭 변경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2004년 조성된 이 곳은 당초 ‘새천년 생명의 숲’으로 불리웠으나 2007년 당시 군수에 의해 전두환의 아호를 따 바뀌었다. 5·18기념재단과 광주 시민사회단체협의회, 생명의 숲 되찾기 합천군 민운동본부가 공동 주최한 탐방에 참여한 이들은 관련 기념물의 철거, 기념사업 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또한 3·1독립운동기념탑이 일해공원 대형 비석 뒤편에 위치한다며 독립운동을 기리는 공간에 독재자를 찬양하는 조형물은 심각한 모순이라고 규탄했다. 참가자들은 군청으로 이동해 ‘전두환 대통령 기념식수’ 표지석 앞에 대법원 판결문 사본을 내려놓고 발로 밟는 상징적 행동을 통해 범죄 사실을 환기시켰다. 생가에서는 ‘전두환 대통령은 단임 약속을 실천해 1988년 2월 스스로 물러난 최초의 대통령’이라는 안내문을 지적하고 나섰다. 앞서 45주년 5·18민주화운동 3주년을 생명의 숲 합천군민본부가 금남로에 부스를 마련하고 일해공원 명칭 변경 서명 운동을 벌인 바 있다. 광주 시민들은 힘을 보태달

라는 호소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러한 일해공원 폐지 법안을 당장 발의해야 한다. 전두환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해야 한다. 세상에 전두환이 자랑스러울 수 없다. 무고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은 학살자다. 독재자, 내란범을 위한 공원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놀랍다. 생가 역시 현재까지 국비로 유지·관리되고 있다고 한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다. 전두환은 대법원에서 12·12 군사반란, 5·18민주화운동 유혈진압, 반란수괴, 내란목적살인 등의 유죄가 모두 인정돼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범죄자를 미화하거나 추종하는 일체의 행위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 12·3 비상계엄과 같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 삼아야 한다.

일해공원의 명칭을 하루빨리 삭제해야 한다. 합천을 찾은 광주시민들은 분노했다. 대한민국의 한뼘 질서를 훼손하는 심각한 도전으로 절대 묵과할 수 없다. 국민적 연대를 위해 여론을 환기해야 한다. 국회도 입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당위성을 갖는다. 국가 차원의 책임감 있는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기고



이범우
완도 부군수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완도군의 ‘완도치유페이’ 정책이 선도적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생활인구 데이터를 반영해 정책 결정과 예산 배분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생활인구는 상주인구뿐 아니라 지역에 체류하며 지역의 실질적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포함된 인구로, 통근·통학·관광 등의 목적으로 하루 3시간 이상 머문 날이 월 1일 이상인 ‘체류 인구’와 주민등록인구, 외국인등록인구, 국내 거소 신고자인 ‘등록인구’를 더한 개념이다.

이는 2023년부터 시행된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도입됐다.

‘완도치유페이’ 지역경제·보통교부세에 파급 효과

통계청이 지난 3월 발표한 2024년 3/4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에 따르면 완도군의 3분기 평균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 4만5천921명, 외국인 등록인구 3천254명, 체류인구 16만8천533명을 더한 21만7천70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주민등록인구의 4.74배에 달한다.

완도군은 2021년 10월 행정안전부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다양한 인구감소 대응 정책을 수립해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상주인구 대비 체류 인구 비율이 3.43배에 달하는 지역으로, 해양치유, 귀어귀촌, 관광객 등 외부 인구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를 더욱 체계적으로 생활인구로 전환하기 위해 완도치유페이 인센티브 정책을 핵심 수단으로 추진하고 있다.

완도치유페이는 관광객의 단순 소비 수단을 넘어 지역 체류를 유도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주요 관광지와 해양치유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일정액의 치유페이를 지급하고, 이를 지역 내 숙박·식당·카페·특산물 매장 등에서만 사용하도록 제한해 지역 소비를 유도하는 구조다.

이러한 구조는 방문자의 체류 일수를 늘리

고, 반복 방문이나 장기 체류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낸다.

실제로 올해 3·5월 완도치유페이를 이용한 관광객의 총 소비는 23억8천970만원에 달했으며, 이중 18억6천700만원이 지역 내 소비로 연결됐다.

총 소비 금액은 3월 2억6천만원에서 5월 12억6천만원으로 약 4.7배 증가했고, 여행 경비 지원 신청은 870원에서 3천577점으로 4배 이상 늘며 많은 관광객이 지역을 찾았다.

이는 관광객이나 단기 방문객도 치유페이를 쉽게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어 일회성 방문을 넘어 생활인구로 유도하는 효과가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완도치유페이를 통한 소비 증가와 생활인구 확대는 지역 재정 수입·수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보통교부세 산정 시 완도군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한다.

완도군은 앞으로도 치유페이 사용을 더욱 활성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밀한 생활인구 분석과 맞춤형 정책 설계에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중앙정부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생활인구의 기여도를 더욱 명확히 반영해 완도군의 노력이 실질적 재정 보상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독자투고



안중민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는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유례없는 폭염을 경험하고 있다.

폭염은 이제 여름철의 일상이 아닌 명백한 ‘재난’이다. 특히 무더위는 노인과 어린이, 야외노동자, 만성질환자 등에게 치명적일 수 있으며 실제 매년 수많은 온열질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필자가 근무하는 소방서는 폭염 관련 응급처치 능력 강화 순화교육과 폭염 관련 물품점점 등 폭염 대비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예방과 군민들의 실천이다.

다가오는 폭염…최고의 응급처치는 ‘예방’

폭염 환자 발생을 줄이기 위해 아래의 기본적인 예방수칙을 꼭 기억해야 한다.

첫째, 갈증을 느끼기 전 수분을 자주 섭취한다. 폭염 시에는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탈수 증상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 다만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고 카페인이나 알코올은 피하는 게 좋다.

둘째, 한낮의 야외활동은 피하고 쉬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 오후 12~5시에는 가능한 외출을 삼가고 야외작업은 아침이나 저녁으로 조정해 주길 바란다.

셋째, 실내내 안전하지 않으니 통풍과 온도조절에 유의해야 한다. 노인 가구에서는 에어컨 사용을 아끼다가 위험한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 실내 온도가 30℃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냉방기와 선풍기를 적절히 활용해 주길 당부한다. 적정 실내 냉방온도는 26~28℃다.

넷째, 주변 이웃을 함께 살펴주시기 바란다. 특히 독거노인, 거동이 불편한 이웃, 어린이들에게 주기적으로 연락해 안전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작은 관심이 큰 안전을 지킬 수 있다.

다섯째, 온열질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한다. 어지러움이나 두통, 근육경련,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은 열탈진이나 열사병의 신호일 수 있다. 이 경우 즉시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119에 신고해 구급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폭염은 단순한 무더위가 아니다. 예방의식을 갖추지 않으면 누구에게나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이 될 수 있다. 올여름 시민들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큰 피해를 막는 힘이 된다. 신안소방서는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서 무더운 여름을 함께 이겨낼 것이다. <신안소방서 신안119안전센터 소방위>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 장 馬亨烈 사 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국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 V 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업무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刊)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